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http://www.daegujobo.or.kr



다니엘레 다 볼테라, 『예언자 엘리야』(c1550). 캔버스에 유채, 판노키에스키 컬렉션, 이탈리아 시에나.

† 오늘의 전례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41-51 참조)

영원한 생명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분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몸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므로, 영원한 생명이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1독서 1열왕 19,4-8 **제2독서** 에페 4,30-5,2 **복음** 요한 6,41-51.

입당송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이진호 안토니오 신부 | 소화본당 주임

우리는 경건한 하늘시민!

“드르륵! 드르륵!”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들려 오는 휴대폰의 ‘네이트’ 창 소리다. 세상 모든 소식이 실시간으로 가득하다. 참 좋은 세상이다. 그러나 피곤하기도 하다. 굿 뉴스보다 배드 뉴스가 더 많고, 더 희한한 것은 조회 수도 훨씬 더 많다. 그래서일까? 요즘 세상은 ‘묻지마’, ‘막가식’이 대세다.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자극적으로 해댄다. 그래야 호소되는 것 같다. 이젠 영역도 부류도 없는 것 같다. 이른바 ‘묻지마 형’의 폭력·폭행, ‘막가식’의 비난, 음해, 폭언의 말들이 사회전반으로 파급되면서 사회를 더욱 긴장하고 경색되게 만들고 있다.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왜 사람이 사람 말을 하지 않고, 사람 말을 하지 못 할까?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 말을 어디서 배워야 할까? 더욱이 참사람은…?

사람은 하늘에서 왔다. 하늘시민이다. 그래서 하늘 말을 해야 한다. 하늘 말은 하늘에서 배워야 한다.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 그래야 하늘시민 되고, 하늘시민으로 살고, 하늘 나라로 가서 하느님과 함께 산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참사람으로, 하늘시민으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하늘의 말을 어디서, 누구에게서 배울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그분에게서, 생명의 빵이신 그분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 말씀을 먹으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먹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생명이 되고, 사람 말을 하고, 사람인생으로 산다. 말씀이신 생명의 빵을 먹고 마셔야 세상을 배우고, 하늘을 배우고, 세상을 살고, 하늘을 살게 된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이런 우리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시민으로 살고 있다. 당연히 하늘스런 말, 하늘시민스런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가득해진다. 저속하고 불경건한 언행은 결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줄 수 없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아버지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이신 하느님, 그 말씀으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 그 사람으로 빵이 되신 하느님, 이 하느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자존감이 하늘까지 고양된 하늘시민 되고, 자신감이 하느님 말씀으로 가득한, 참사람, 참인생, 참생명을 얻는다.

복잡, 다양한 세상이다. 이럴 때 일수록 더 단순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성실해져야 한다. 하느님께 배우고, 익히며,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살길이다. 오늘도 말씀으로 사람이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우리 생명의 한 가운데로 오신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하늘시민스럽게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히고, 살아보자. 우리는 경건한 하늘시민이다. “그분은 생명의 빵이시다.” **말씀**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②

나만 착하게 살면 된다?

바로로 씨는 평소 주일미사를 빠지지 않는 열심한 신앙인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데다가 낭비하지 않는 덕에 바로로 씨는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선뜻 밥값을 낼 줄도 알아서 인색하다는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바로로 씨가 세금을 생각하면 속이 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불린 내 재산인데, 엉뚱한 사람들 복지 챙겨준다고 그 귀한 돈을 뺏기는 것 같아서 부아가 치밀니다. 이런 바로로 씨는 나쁜 사람일까요? 세상 일이 흑백으로 나뉘지 않듯이 사람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딱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복지 혜택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분에 넘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된 사람도 있는데, 성실한 바로로 씨가 왜 그런 이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을 교리’를 배우고 익혀서 ‘지킬 계명’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로 씨의 경우처럼 복잡한 세상살이 안에는 나 홀로 덕을 쌓고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헤아려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세계적인 신발 회사는 선진국의 고객이 신발을 한 켤레 사면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에 공짜 신발을 보내는 캠페인을 해서 호응을 얻었는데, 그 구호 신발을 받은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벌어진 현실은 훈훈하지 못했답니다. 쏟아진 공짜 신발 때문에 가내 수공업으로 신발을 만들어 연명하던 지역 주민들이 쫓짝 망하고, 망한 신발 가게 주인들에게 재료를 공급하던 사람들도 덩달아 망하고... 결국 지역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를 겪은 것이죠.

이처럼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큰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단순히 ‘착하다, 아니다’ 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두질 않아.’하고 푸념이 나올 때에도, 그런 세상을 하느님 뜻에 비추어 바른 길로 이끌어줄 지침이 필요합니다. 사회 교리란 바로 그런 생각과 기준과 지침을 주는 교회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

“교회의 사회 교리는...인간 실존의 복잡다단한 현실들을 사회 안에서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빛과 교회 전통의 빛 안에서 주의 깊게 고찰한 결과를 면밀하게 형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 중요한 목표는 이러한 현실들을 해석하는 데에 있으며, 인간과 그의 소명, 지상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소명에 관한 복음의 가르침의 노선에 그런 현실들이 상합인지, 아니면 위배되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말하자면, 그 목표는 그리스도교다운 행동의 지표가 되는 데에 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사회적 관심』 41항)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이동철 대건안드레아 신부 | 두산본당 보좌

월요일 아침에 장례미사를 집전하려고 사제관을 나섰습니다. 성당 쪽으로 몸을 돌리려는데 성당 정문에 미사에 참례하려고 오신 분들이 모여서 어떤 차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례차량이 들어와야 하는 정문을 어떤 차량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운전석 앞 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차량 조회를 한 끝에 성당 근처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을 알았고 차량주인은 경찰이 그 집을 방문한 끝에 경찰차를 타고 성당으로 와서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장례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정문을 막고 있던 차량을 이동시켜서 다행이었지만 차량주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소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교중미사의 성체분배를 도우려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중년 여성이 성전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신자는 아닌 것 같아서 무슨 일이냐고 말을 건넸습니다. 돌아오는 말 속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해 놓으면 어떡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봉헌을 하고 돌아오는 신자들 사이를 뚫고 해설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을 놓치지 않고 0000번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방송 아닌 방송을 했습니다. 신자석의 중간

쯤 앉아계신 한 사람이 황급히 뒤로 나갔습니다.

주차난이 심합니다. 하지만 주차난이 심하다고 바쁜 일상 중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성당에 왔다면 성당 주위의 주민들에게 민폐가 되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주차는 성당 주위의 주민들에게만 민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사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사를 통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미사 참례에만 신경을 써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오히려 이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인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오늘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주차를 통해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필문**



홀로서기

미국에 사는 수잔 앤더슨은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려져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술은 실패했고 그녀는 실명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남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까지 그만두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수잔은 남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감마저 느낀 그녀는 다음날부터 이를 악물고 그동안 익힌 것을 더듬으며 혼자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며 넘어지기도 했고, 때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

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다 보니 어제 보다 오늘이, 오늘 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점차 혼자 출퇴근 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을 무렵,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그녀를 향해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집니다.

“부인은 참 좋으시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주세요요.”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그도 같이 뒷자리에 타서 아내의 출퇴근 길을 말없이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문**



금주의 성인

8월 9일	성 로마노(군인, 순교자, 로마, 258년)
8월 10일	성 라우렌시오(부제, 순교자, 258년), 성녀 바사(동정순교자) 성 아스테리아(동정순교자, 베르가모, 307년)
8월 11일	성녀 렐리아(동정녀, 6세기), 성녀 수산나(동정순교자, 로마, 295년) 성녀 필로메나(동정순교자), 성녀 클라라(설립자, 아시시, 1194~1253년) 성 타우리노(주교, 에브뢰, 412년), 성 티부르시오(차부제, 순교자, 로마, 288년)
8월 12일	성녀 디냐(하녀, 순교자, 304년), 성 에우플리오(부제, 순교자, 카타니아, 304년) 성녀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샹탈(설립자, 수녀, 1572~1641년), 성녀 힐라리아(순교자, 304년)
8월 13일	성녀 라데군다(왕후, 수녀원장, 518~587년), 성 막시모(수도원장, 증거자, 580~662년) 성녀 첸톨라(순교자, 304년), 성 폰시아노(교황, 순교자, 235년) 성 히폴리토(신부, 순교자, 교부, 로마, 175~235년), 성 카시아노(주교, 순교자, 토디, 4세기)
8월 14일	성 마르첼로(주교, 순교자, 아파메아, 389년), 성 에우세비오(신부, 증거자, 로마, 4세기경)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신부, 순교자, 1894~1941년), 성녀 아타나시아(과부, 은수자, 콘스탄티노플, 860년경), 성 우르시치오(순교자, 니코메디아, 304년),
8월 15일	성녀 마리아(예수의 어머니, 1세기), 성 알리피오(주교, 타가스테, 360~430년) 성 타르시치오(복사, 순교자, 로마, 3세기경)

■ 교구 내 피서지 주변 성당 안내

경주 유적지, 보문 관광 단지

☎ 성건본당 (054)749-8900

☎ 성동본당 (054)776-1841

☎ 황성본당 (054)771-7817

구룡포 해수욕장, 대보면 해맞이 광장

☎ 구룡포본당 (054)276-2439

울릉도, 독도

☎ 도동본당 (054)791-2047

☎ 천부본당 (054)791-6047

직지사(김천)

☎ 대신본당 (054)437-1785

☎ 평화본당 (054)434-1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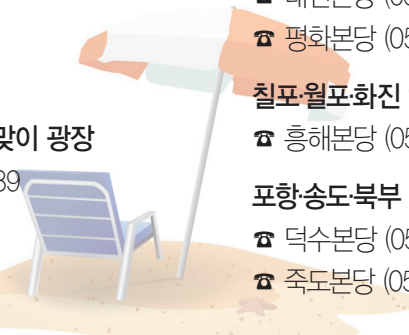
칠포·월포·화진 해수욕장

☎ 흥해본당 (054)262-2258

포항·송도·북부 해수욕장

☎ 덕수본당 (054)246-6311

☎ 죽도본당 (054)273-3441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32주간, 2015.8.9~8.15.>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사36-39장	40-41장	42-43장	44-45장	46-48장	49-51장	52-55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제20이사야서의 내용(40-55장, 유배 중):

- 예언자의 소명과(40장) 이방민족을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 전하고(42-45장) 바빌로니아와 그 나라 신들의 몰락 그리고 주님만이 유일한 하느님이심을 선포한다.(46-48장)
- '주님의 종'의 노래가 네 번(42,1-9; 49,1-7; 50,4-11; 52,13-53,12) 등장하는데, '주님의 종'이라는 인물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 보편적 구원이 현실화된다는 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 제30이사야서의 내용(56-66장, 유배 후):

-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신앙으로써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음(56,1-8), 예배(56,9-57,13), 안식일, 단식에 대해서(58장), 죄에 대한 탄식과 호소(59장) 등을 강조한다.
- 귀환 후 부풀었던 꿈이 무산된 실의와 좌절로부터 회복하게 할 영광과 찬미를 제시한다.(60-64장)
-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65-66장)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생명을 살리려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10일(월) 11:00 황성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10일(월) 11:00 계산성당
구미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8월 10일(월) 11:00 신명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10일(월) 11:30 범여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10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8월 15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작은예수회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8.14(금)~16(일)
 장소: 가평작은예수회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테레사, (010)2646-0583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8.14(금) 13:00~16(일) 16:00
 장소: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강당
 대상: 중고 포함 젊은이(35세 미만)
 비용: 3만 원
 문의: 음성꽃동네, (010)5490-5345

젊은이 여름 피정 캠프
 기간: 8.14(금)~16(일)
 대상: 만 30세 이하 미혼 여성
 신청: <http://cafe.daum.net/sgbp>
 문의: 선한목자예수수녀회, (02)919-2754

베네딕도 영성관 신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8.17(월) 9:30~20(목) 17:00
 문의: 313-3425 / 14만 원
 힐데가르트 영성 피정에 초대합니다.
 기간: 9.12(토)~13(일)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치유 피정
 기간: 8.22(토) 15:00~23(일) 17:00
 강사: 정구중(스테파노)
 2박3일 성령세미나(634차)
 기간: 9.11(금) 13:00~13(일) 17:00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교육 | 모집

콜베의 밤에 초대합니다
 성모기사회 주관 콜베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성인유해 현시)
 일시: 8.14(금) 18:30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수도원 뒤)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기도회
 일시: 매주 (화) 23:00~(수)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20:30
 수성구청 앞 21:00
 문의: 김명옥, (010)5529-3186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입학생 모집
 모집: 6.8(월)~9.30(수) / 9월 개강
 대상: 성경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 누구나
 네이버 검색: 가톨릭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10)7249-7966

이스라엘 성지 순례
 기간: 9.5(토)~13(일) 8박 9일

주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지대표부
 문의: 김정훈 신부, (010)5607-2046

이상재 신부와 함께하는 크루즈 순례
 기간: 11.5(목)~18(수) 13박 14일
 장소: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비용: 내측 538만 원부터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김길수 교수와 함께 하는 성지 순례
 내용: 일본 4박 5일 / 58만 원
 문의: 천주교 사도직회(팔로티회)
 (010)4239-1929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 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24평형 계약중, 35평형 마감
 각종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장소: 인천 서구 / 문의: (032)280-1500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백두정형외과
 SINCE 1975 <http://baekduos.com>
아개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마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중 훈 (바오로)
 피부질환 | 아토피 | 알레르기 | 사마귀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미용 |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형수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온빌딩 3층 (구,달성교점)
 1호선 성당앞역 3번출구 T.053) 651-8800

하나 염색약
 전문점/취급점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허가제품
(주)한아코스메틱
 053)741-7912 | 010-3526-6539
 대표 전 영 자(마리아)

국비지원/무시험/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야간 9월 12일~12월 12일
 65세 이하, 남녀/학력 무관
대가대장례교육원 T.554-4404

제일전기조명
 가정용 LED 조명
 공장용 LED 조명판매설치
 (공장도가판매)
 전기요금 반으로 줄어듭니다!!
 - 전기 기사 구함 -
 ☎ 053)604-0651~2

대구 산모케어 관리사협회
JINI Aesthetic 지니에스테틱
 전직원 시메스코 국제 자격증,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산모케어 관리사 자격증
 ● 율혈관리, 오로배출관리
 ● 출산 후 부종 관리, 벌어진 골반 관리
 ● 반영구, 속눈썹 연장, 확실 (교육생 모집)
 김 훈 정 (안나) ☎ 053)290-3663

BL
비엘성형외과피부과
 BL Plastic Surgery & Dermatology
 한방 소규셉션
10명의 분야별 전문의 진료
 053)600-1000 www.bl.or.kr
 대구 중구 동성로 CGV한일 (구 한일극장) 5.6.13층

"취업, 직업훈련, 수당까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주)위너스잡 취업센터
 이 계 순(수산나)
 상담 | 대구센터 : 522-0180
 경산센터 : 811-0272
 지하철 2호선 감삼역 3번 출구

행사 | 모임

LD와 함께하는 3차 신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9.5(토) 13:30~6(일) 17: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 5만 원
 마감: 8.26(수), cafe.daum.net/biap
 대구은행: 508-11-836412-0(한상수)
 주관: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8월 가나 강좌

일시: 8.16(일) 10:00~17:30(9:30접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비용: 2만 원 /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641-5678

교육 | 모집

제36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기간: 8.17(월)~21(금) 14: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
 비용: 3만 원 / 마감: 8.11(화) 17:00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제7회 교구 청년국 젊은이음악캠프

기간: 8.22(토)~23(일), 마감: 8.15(토)
 장소: 대가대청통수련원 / 6만 원
 대상: 13~35세 미사반주봉사자
 문의: 조아나스타시오, (010)4509-7016

ME주말과 함께 다시 떠나는 신혼 여행

334차: 8.14(금) 19:30~16(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다음 ME주말은 10월에 있습니다.
 부부사랑은 성가정의 첫걸음입니다.

대가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보육, 사회복지사, 심리, 음악) 음
 악원(피아노, 오르간, 성악, 작곡, 뮤지컬
 등) 취미교양, 자격증취득 및 전문기양성
 마감: 8.28(금) / 개강: 8.31(월)
 장소: 감삼동 / 문의: 660-5554~7

대구가톨릭문인회 주관 문창반 모집

기간: 9월부터 2016.2월까지
 장소: 교구청 내 가톨릭여성회관
 담당: 박복조 시인
 비용: 6개월 20만 원
 문의: 254-6115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제22기 모집

개강: 9.14(월) 19:00(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중국현지학습 등
 비용: 6개월 과정 100만 원
 문의: 김영택(바로로), (010)9494-8169

국비지원 무시험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야간반(30명): 개강 9.12~종강 12.12
 교육: 월, 수, 금 18:30 / 토 13:00
 대상: 65세 이하 신자 / 학력, 남녀 무관
 특전: 교육비, 식비, 차비, 국비지원
 문의: 대가대장례지도사교육원, 555-4404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교실, 어린이성악, 통기타,

우쿨렐레, 오카리나, 플룻, 바이올린,
 성가반주법, 캘리그래피, POP, 민요,
 성인생활영어회화, 초등영어회화-문법
 문의: 476-6211(지하철 1호선 교대역)

채용 | 안내

교구청 관리국 여직원(경리직) 채용

자격: 전문대졸 이상, 30세 이하 1명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성적증명서
 마감: 8.18(화) / 제출장소: 관리과
 문의: 교구 관리국, 250-3010

요양원 어르신 모집, 요양보호사 채용

입주: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 받은 여성
 채용: 요양보호사 00명
 문의: 파티마홈(베네딕도수녀회 운영)
 324-1188 / (010)8595-1186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푸른평화소비자생활협동조합 문화센터

문화에 가치를 더하다.
 문화센터-공연, 강의, 소모임 대관
 장소: 수성구 지산로3길 128, 지하
 (두산상당 맞은 편)
 문의: 631-3303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흠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아육수(아네스) 010-5048-7739

www.appleuro.com
에플비노기과
 비노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 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셀레임으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텍시도대여 | 메이킹 · 헤어디자인
 김 대 현(프란치스코)
 ☎ 053)424-7777 | 010-2112-8236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크리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통일주차장 무료)
 ☎ (053)428-7989 | 010-4439-9991
 교수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모님발현 성씨순례
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
(12박 13일)
출발일 : 9월 2일 (출발확정)
T. (053)253-3399
 조 철 래(유스티노)
 흥 미 려(안젤라)

행복의료기
(행복메디칼)
 가정용 의료기, 체온계, 마스크
 혈압계, 혈당계, 건강측정기기, 실버용품
 병원용품 도·소매, 건강기능식품
 대표 이 희 자(루시아)
 ☎ 053)626-0072
 내당네거리 진성두류타운 뒤편(시내배송가능)